

돼지고기 값 급등 삼겹살 '金겹살' 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성수기 영향에 돼지고기값 상승세 본격화 5개월만에 55% ↑ ...수입 냉동 삼겹살 한 달 새 10% 상승

삼겹살 가격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영향으로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심상치 않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세계 최대 돼지고기 소비국인 중국과 베트남 등을 강타한 가운데 돼지고기값 상승세가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국내 전체 돼지고기 유통 물량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수입산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하면 국산 돼지고기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돼지고기값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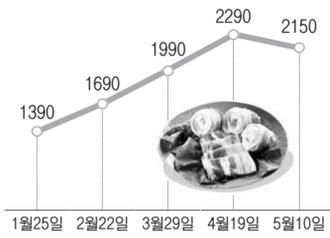
26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가 발표한 소비자가격정보에 따르면 광주 지역 대형마트 돼지고기 삼겹살(100g) 가격은 지난 10일 2150원으로 지난 1월25일 1390

원에 비해 54.6% 올랐다. 광주 대형마트 삼겹살 가격은 ▲2월22일 1690원 ▲3월29일 1990원 ▲4월19일 2290원으로 지속적인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수입 냉동 삼겹살 시세(도매가)는 한 달 만에 10% 뛰었다. 지난 달 말 kg당 5800원 선이던 서울 마장동 축산시장의 수입 냉동 삼겹살 시세(도매가)는 5월 말 현재 kg당 6400원까지 올랐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수요가 늘고 있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 영향으로 돼지고기 수입물량이 급감하면서 가격이 오르는 것이다.

"보통 4~5월 사이에는 계절적 요인으로 가격이 2~3% 정도 소폭 오르긴 하지만 10% 이

■광주 대형마트 삼겹살(100g) 가격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단위: 원)



상 오른 것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영향 등 다른 요인이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축산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남지역 돈육(돼지고기) 도매가 시세도 들쭉날쭉하다.

나주축산농협 도매시장 kg당 돈육대표가격

을 보면 ▲1월24일 3485원 ▲2월25일 3310원 ▲3월25일 4172원 ▲4월24일 4469원 ▲5월24일 4501원으로 1월에 비해 현재 도매가격은 29.1%(1016원) 뛰었다.

중국의 돼지고기 생산량 감소로 인한 파급효과는 이미 국내에도 미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4월20일까지 국내 돼지고기 수입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8만3789t보다 16.7% 감소한 6만9830t에 그쳤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생한 이후 인접국가인 베트남, 몽골 등 아시아 국가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열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불법 해외축산물을 판매하지 말 것과 위반사항 발견 시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축산농가, 키울수록 손해 한우·돼지·닭 수익성 악화

지난해 육우(고기소)를 제외하고 소·돼지·닭 등 모든 축산물의 사육비가 올라 마리당 수익성이 나빠졌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8년 축산물생산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우비육우(소고기) 한 마리당 손실은 5만7000원으로, 전년 손수의 13만3000원에서 손실로 전환했다. 2014년(-29만3000원) 이후 4년 만의 손실이다.

육우의 경우 한 마리를 키우면 49만2000원의 손해를 봐, 전년 손해 95만3000원보다는 그 폭이 감소했다.

돼지고기(비육돈) 마리당 손익은 전년보다 43.9% 감소한 4만8000원이었다.

닭고기(육계)는 2016년 조류 인플루엔자(AI)에 따른 대량 살처분 이후 지난해 사육포화상태가 오면서 손익은 전년(149원)보다 18.9% 감소한 121원을 기록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이 모습 그대로 건강하세요" 송정농협(조합장 김형덕)은 최근 농협 경제사업장 대회의실에서 고령 농업인 50여 명과 함께 '농촌이르신 장수사진 무료촬영'을 진행했다. 행사는 (사)우리농업자키움동분부(총장 김덕수),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일수), NH농협광주노조(위원장 박삼지)와 함께 주관했다.

농협 전남본부, 농가소득 증대 추진 우수상

강진 남부 등 전남 5곳도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석기·사진)가 최근 서울 농협중앙회 중앙본부에서 열린 '동심동덕 농가소득 증대 추진 보고회'에서 '농가소득 증대 추진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남본부는 농가소득 핵심 추진과제 부문 전국 2위 실적을 인정받아 중앙회장 표창을 수상했다. 농협중앙회 화순군지부, 영암군서농협, 고흥팔영농협, 강진 남부농협, 장흥

용두농협 등 전남 5개 농협도 같은 부문 상을 받았다.

이날 보고회에는 농협 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앙본부 임원, 시도지역본부장, 지부장, 조합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가소득 추진 경과보고, 중앙회장 특강 등이 2시간 동안 진행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 쌀 '풍광수토' 위메프서 만나세요

전남 쌀 공동브랜드 '풍광수토'가 지난 23일부터 온라인 쇼핑몰 '위메프(wemakeaprice.com)'에서 판매를 시작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이날 담양 금성농협 미곡종합처리장 광장에서 '풍광수토'의 온라인 진출 기념식을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행사에는 박하원 농협 전남지역본부 경제본부장, 양용호 금성농협 조합장, 유동찬 전남도 양곡유통팀장, 김중구 담양군 유통과장, 김동권 유니크플러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

금성농협과 위메프 쌀 공급업체인 유니크플

러스는 이날부터 온라인 배너광고도 실시하고 첫날 할인권 증정 행사를 열었다.

지난 2017년 새만간을 마친 풍광수토 쌀은 올해 전남지역을 포함해 제주도 및 영남권 등 판매처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171t을 판매하며 매출액 40억원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판매량(1058t)에 비해 61.7% 증가한 수치다. 농협 측은 참여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과 올해 100억원 매출 목표를 세웠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주간 증시 전망 미·중 무역협상 담보에 불확실성 지속 코스닥 지수 3.37% ↓ ...중소형주 하락세 매도전략보다는 저점 분할매수전략 유효

무늬만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과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한 데 이어 중국 상무부도 "미국이 협상을 원한다면 잘못된 행동을 고쳐야 한다"고 발표하며 미·중 무역분쟁이 실물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원유수요 둔화 우려와 미국과 이란 협상가능성으로 국제유가가 금요일에만 WTI가 5.7% 급락했다. 처음에는 트럼프식 대선 전략이라고 생각했던 미·중 통상마찰은 미·중무역분쟁을 넘어 G2 패권전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6월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의 무역협상이 하반기 글로벌 증시의 방향성과 변동성을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달러 환율은 무역협상 불확실성과 한국 무역수지 악화가 심리적 요인을 자극하고 최근 타이탄 외화수급이 겹치며 중국 위안화와 동조화 속에 1190원을 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의 단기외채비중과 외환보유고, 외국인의 채권시장 순매수 등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면 1200원선 전후에서 고점을 형성하고 하반기에는 안정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부분의 전망주체에서는 하반기말에는 1150원대 이하에서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비관론적인 관점에서 무역분쟁 장기화로 글로벌경기까지 침체로 진입한다면 대외비중이 높은 한국의 특성상 무역수지 악화와 외국인 투자자금의 단기유출이 가속화되며 극단적 흐름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 국면을 1997년 IMF와 2007년 금융위기와 비교하기에는 아직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지난주 다우지수와 코스피지수는 각각 -0.69%와 -0.51%로 약재에도 하락경직을 보이며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나스닥지수 -2.29%와 코스닥지수 -3.37% 하락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하락세가 크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경기침체에 민감한 중소형주에 대한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주 외국인수급을 살펴봐도 코스피지수에서는 일별 순매수를 보이며 1673억원 순매도로 진정세를 보였지만 코스닥지수에서는 7일째 순매도를 이어가며 지난주에만 3008억원 순매도를 보였다. 지속적으로 언급했지만 현재 국내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변수는 외국인 수급이며 시장반전을 위해서는 외국인수급 전환이 꼭 필요하므로 외국인 수급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번주 주요 이벤트로 28일 기준으로 MSCI 신흥국 지수에서 중국 A주 인장비중이 5% 늘어난다. 국내증시에서는 MSCI 신흥국지수 추종자금을 1.1조달러로 가정하면 국내시장에서 3-4원 정도 이탈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투자자는 5월에만 유가증권시장에서 1.4조원과 코스닥시장에서 0.42조원 순매도를 보였다. 2018년 5월 사례를 볼 때 아직도 MSCI에 연계된 순매도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며 28일 당일까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주 31일-6월4일까지 ASCO 압축회도 예정되었고 국내제약회사로는 한미약품, 유한양행, 제넥신, 에이치엘비 등이 참여하고 있다.

지속적인 시장 하락으로 힘든 하루하루가 진행되고 있지만 현지수대에서는 매도전략보다는 보유나 저점 분할매수전략이 유효하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중심으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정계두
(유투투자증권 광주지점장)

GUMHO (주)금호주택 | 광주광역시 서구 경영로 17번길 9 거승빌딩

임대 문의 (062)382-8879

광주사업지

- 동 구 | 자산동, 소태동
- 서 구 | 금호동, 풍암동, 치평동, 농성동
- 남 구 | 주월동
- 북 구 | 신용동, 연제동, 운암동
- 광산구 | 수완동, 신창동, 운남동, 월계동, 신월동, 소촌동, 송정동, 도산동

전국사업지

- 서울특별시 | 잠실동
- 부산광역시 | 광안동
- 제주특별자치도 | 노형동
- 경기도 안성시 | 종리동
- 전남 목포시
- 전남 화순군
- 전남 담양군
- 전북 완주군

가족회사
(주)송도건설 / (주)금호에너지 / (주)송도 / (유)송산